



 **SMUDA**  
SANGMYUNG UNIVERSITY DANCE ARTS

**무용예술학과 대학생기자단**

**댄스르포 뉴스레터**

**2018**  
**June**  
**VOL. 02**

**Dance**

**Reportage**

# CONTENTS

<b>한선숙교수님퇴임감사패증정식</b>	-----	<b>3</b>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b>교육공연 Arts &amp; Technology</b>	-----	<b>5</b>
<춤추는 역사박물관>		
<b>중학교 자유 학기제</b>	-----	<b>9</b>
<세상에 없는 학교>		
<b>무용예술학과 AVTIVITY</b>	-----	<b>11</b>
2017년 하반기 주요활동		
<b>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b>	-----	<b>14</b>
2017학년도 파견 해외연수생		
<b>PEOPLE INSIDE</b>	-----	<b>16</b>
진로를 위한 멘토 인터뷰		
<b>REVIEW</b>	-----	<b>24</b>
무용예술학과 공연 및 워크숍 그 뒷 이야기		

# 한선숙 교수님 퇴임 감사패 증정식

##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8년 3월 6일 화요일 (10:30~ 11:30) 상명대학교 월해관 504호에서 한선숙교수님의 퇴임 감사패 증정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는 15학번 김현지 학생이, 편지 낭독은 15학번 정윤정 학생이 해주었으며 교수님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 증정과 편지 낭독을 마친 뒤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선숙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퇴임식 행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 15학번 김현지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패 증정식>



▶ 무용예술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 존경하는 한선숙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편지 올리겠습니다.

찬 바람이 남아있지만 들뜬 마음에 추운 줄도 몰랐던 스무 살의 3월,  
누구에게나 있는 새내기시절을 지나 벌써 마지막 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한 지난 시간들은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용에 대한 여러 기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련되게 대하는 방법,  
즉 사람을 대하는 말투에서 행동까지 교수님을 본 받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으로서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부모님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겸비하신 교수님의 모습은 저희에게 늘  
감동이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 당일,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시며 꼭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긴장되었던 저희에게 교수님의 포옹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자들을 위한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어른  
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亨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생 대표 <감사의 편지> 중에서-



▶ 교수님의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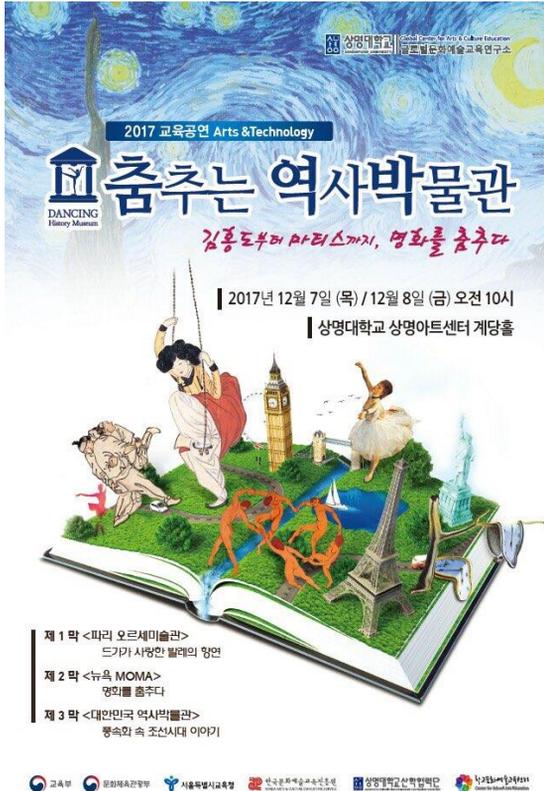


▶ 졸업 동문들과 함께

글·편집 이현정

# 교육공연 Arts & Technology

## <춤추는 역사박물관>



### '역사속예술이야기'로 떠나는 시간여행

### <춤추는 역사박물관>

지난 2017년 1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교육공연 프로그램 <춤추는 역사박물관>이 공연 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장르, 그리고 과학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논버벌 퍼포먼스로 시도되었다. 이번 교육공연<춤추는 역사박물관>은 아동, 청소년기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심미안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연의 시도라 할수있다.



▶ 춤추는 역사박물관 마지막 무대인사



▶ 제 1막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공연 중



▶ 제 2막 뉴욕 MOMA 영화를 춤추다 공연 중



▶ 제 3막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피날레 공연 중

## 김홍도부터 마티스까지, 명화를 춤추다!

### 15학번 박정주

춤추는 역사박물관의 스토리 회의, 팸플릿 제작 등과 같은 공연 준비 과정에 참여하며,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공연 기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작품이 상연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용작품 구성방법, 조명·세트 등의 무대장치를 활용한 표현방법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기부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

춤추는 역사박물관의 무용수로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뜨거운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객석의 대부분을 메워준 초·중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무용비전공자)들에게 무용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친숙한 주제와 표현 방법으로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커다란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에게 소중하고 뜻 깊은 공연이 되었을 춤추는 역사박물관. 상명대학교를 빛내고 무용의 대중화를 이끄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꾸준히 상연되고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한다.

## 함께라서 더 성장 할 수 있었던 무대

### 17학번 최소진

정기공연 연습을 하면서 혼자 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고 선배들과 같이 레슨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잘 이끌어 주셔서 극복해 낸 것 같다. 신선한 주제와 콘텐츠를 가진 작품을 하게 되어 주어진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제 3막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장 공연 중



▶ 공연이 끝난 후 현대무용과 단체 사진 중

## 융합으로 더욱 새로웠던 무대

### 17학번 차기정

이번에 춤추는 역사박물관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서로 맞추어 무대가 꾸며진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들과 다르게 무대 뒤로 우리학교 무대미술학과가 만든 미디어아트영상으로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게 되었는데 중세 시대 화가의 작품에 맞게 안무를 구성하고 느낌을 찾는 것이 처음이라 기존의 공연들보다 재미있고 신선했다.

## 온 몸으로 느낀 무용대중화의 첫걸음

### 17학번 윤문호

이번공연은 다양한 무용 장르와 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무용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연의 진행방식은 무용역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고 진행자의 부연설명을 통해 어린 친구들이 무용을 친근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직접 공연에 참가한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제1회 춤추는 역사박물관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연 전 무대 뒤에서 찍은 사진

## 선조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

### 15학번 최진웅

이번 정기공연은 그 전에 관람했었던 기존의 정기공연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의 공연이었다. 특히 한국무용 공연은 춤추는 역사 박물관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모습과 선조들이 즐겼던 다양한 놀이문화 모습들까지 전통춤과 창작춤을 융합해서 표현한 것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참여하고 싶은 공연이었다.



▶ 공연이 끝난 후 출연진과 함께 찍은 사진

# 중학교 자유학기제

# '세상에 없는 학교'

## The one and only school



중학교 자유학기제 <세상에 없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창체활동 프로젝트로 2017년 8월 부터 12월까지 상명중학교, 동북중학교, 목동중학교, 도곡중학교, 언주중학교 총 5개의 학교에서 '세상에 없는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무용과 예술을 융합한 몸짓 인류학, 국어 교과와 예술활동을 접목한 **예술어 탐구생활**, 무용 + 연극 + 영화의 요소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년버벌 자기 탐구서**, 무대 미술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드림 스테이지**, 예체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예체능 꿈끼 디자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세상에 없는 학교’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학생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세상에 없는 학교’를 통해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 되어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수업 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고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수업을 마치며, 많은 학생들의 기대감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책임감,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하는 방법이 점점 발전되어 성취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매 수업마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사 진 김은솔, 박정주, 이현정  
글·편집 유현민, 이현정

# 무용예술학과 ACTIVITY

## 2017년 하반기 주요활동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의 기초역량 교육부터 심화, 발전 단계의 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진로 멘토링과 초청강연을 통하여 역량개발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2017 제 4차 무용진로교육 워크숍 멘토 특강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17:00~18:00)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103호에서 '예술전공자(무용)의 비즈니스 생태계 진입'이라는 강연을 주제로 '문화예술과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매스티지데코 김지수 대표님께서 제 4차 무용진로교육 워크숍 멘토특강을 진행해 주셨다.



## 진로개발로드맵 CDR 설명회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14:00~15:00), 상명대학교 월해관 205호에서 '17학번 신입생을 위한 무용예술학과 CDR과 학사제도' 관련 진로 개발 로드맵 CDR설명회가 진행되었다. 2017학번부터 CDR 진입이 의무화 되면서, 희망하는 다/부/심화전공에 대한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창의융합형 무용인재를 꿈꾸는 SMUDA 17학번의 진로를 응원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봉사단 활동 개시

상명대 무용예술학과 학생들은 지난 11월 1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국민코리아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가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최이슬 외 20여명의 학생들이 개회식 공연무대에 오르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2017 상명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부터 12월 01일 금요일까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 갤러리 월해관에서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본 경진대회에 무용예술학과에서는 <D-Edu: 박유경, 김은솔, 박정주, 유현민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유아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로 본선에 출전하였으며, 무용과 유아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참신한 콘텐츠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2017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 연구소 국내 학술세미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된 상명대학교 스포츠무용학부(대학원) 및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2017년 12월 14일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 활동을 기반으로 무용분야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



글 · 편집 박세린, 강은비

#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2017학년도 파견 해외연수생 15학번 최예원

## ‘글로벌상명 으로 성장하는 무용인재를 꿈꾸며’



▶ Homecoming Street Parade



▶ UNK Campus

교환학생을 지원해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 시기는 상명대학교에 입학하고 여름 프랑스로 해외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였다. 프랑스의 도심과 여러 지방 지역들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공연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그 공연들을 성공적으로 올리기 위해 여러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경험들을 통해 학창시절 동안 오직 전공인 무용실기 기술을 늘리는 것이 전부였던 나에게 무용을 하는 것 만이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 더 큰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언어적 부분의 한계로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수업 과정을 통해 영어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소통을 하려고 하니 어색하고 소심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끝에,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환학생프로그램에 도전해 보고자 했다. 언어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더 크게 나의 진로가치관을 넓혀보고자 참여하게 된 것이다.

## 교환학생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명대학교 해외파견연수생은 총 네 가지의 파견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정규교  
환학생은 1년을 수학하며 파견교 등록금을 면제 받고 본교 등록금을 납부한다. 두 번째  
로 장학교환학생은 1학기 또는 1년을 수학하고 본교와 파견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되 본  
교로부터 SSAP장학금을 수령한다. 세 번째로 자비교환학생은 파견교에서 수학하되 본  
교 및 파견교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마지막으로 어학교환학생은 파견교에서 1학기 어학  
수업을 듣고 본교와 파견교에 등록금을 내되 본교로부터 SSAP장학금을 받게 된다.

어학 후 장학이란 1학기 어학수업 후 1학기 정규수업을 듣게 된다. 기본적으로 직전학  
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 후 자신이 파견되고 싶은 학교에서 요구  
하는 조건에 따라 TOEFL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파견교를 정하였다면, 학업계획서와  
교수추천서 등 여러 서류를 본교 국제학생팀에 제출하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를  
보고 난 뒤에 파견이 확정된다.



▶ K-Athletic Competition

▶ Recreational Club

## 교환학생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어디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  
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  
은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는 더 큰 세상을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교환학생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사 진 최예원  
글·편집 최예원 유현민

# PEOPLE INSIDE

## 진로 멘토 인터뷰



공연예술경영을 통해  
무용계의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님을 만나다

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송정은무용단 대표

한양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교수이자, 제 22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신 조남규 이사장님을 만나 예술경영과 행정 분야의 진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한국무용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A.** 1962년 무용가들의 권익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무용계를 대표하는 협회입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서울무용제, 신인무용콩쿠르,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등 많은 콩쿠르와 공연들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용계 그리고 무용가들을 위한 정책과 현안들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무용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무용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A.** 무용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취업이 잘 되어야 하고 무용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용계 학생들의 과감한 인식변화와 전공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재 무용을 전공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무용하는 학생들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갈 전문적 직업군으로 춤추는 것 말고도 다른 방면으로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네마리 백조 페스티벌(출처-그린포스트코리아) 우-서울무용제 기자간담회 (출처-이데일리)>

**Q. 한국무용협회를 이끄시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이사장으로서 무용 후배들에게 큰 꿈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게 국립무용센터 건립이고 그 안에 다양한 박물관이나 아카이브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문제이고 이걸 무용의 후세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용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사장님처럼 공연 기획 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무용과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A.** 기획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획에 관한 공부를 꼭 해서 현장을 알아야만 작품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기공연도 작은 기획들입니다. 그 작품을 잘 기획하고 꾸며서 성공적인 무대를 만드는 경험을 쌓다 보면 더 큰 무대를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 더 배우고 성인이 된 후에 기획자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의 스터디 그룹을 통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글·편집 황지연 이정민

# PEOPLE INSIDE

## 진로 멘토 인터뷰



### 노원구 예술문화 발전의 중심지 <노원문화 예술회관> 김승국 대표님을 만나다

현)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이북5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978년 '월간 공간'의 편집부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교단으로 자리를 옮겨 교직생활을 하다가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김승국 대표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국 대표입니다. 전통,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 위원, 이북 5도 문화재 위원, 한국 전통 예술학회 이사 등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전통연희론, 전통 공연예술론, 예술행정, 예술경영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문화재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지요.

**Q.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A.**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역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돌아갈 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이죠.

**Q. 2018년도의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A.** 작년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1년의 기획공연을 미리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이 미리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근 학교들의 예술 수업 공간을 노원 예술문화회관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더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좌- 김승숙 대표님과 상명대학교 기자단 박세린, 강은비, 우- 노원문화예술회관 김승국 대표님>

**Q. 대표님의 발자취가 궁금한데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노원예술문화회관 대표 직위까지 선택하게 되셨나요?**

**A.**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일은 문학이었어요. 대학을 마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메카라고 하는, '공간사랑'에서 편집부 기자 생활을 할 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현)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되고,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어 전통 예술분야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거치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예술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꿈은 이루어 진다는 말이 있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 꿈을 접지 않는 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이 멈추어 지지 않을 것이고,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글·편집 박세린 강은비

# PEOPLE INSIDE

## 진로 멘토 인터뷰



‘안무가’와 ‘무용수’로써의 균형  
성실한 무용가의 길을 걸어 온  
**복미경** 무용안무가를 만나다!

현)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학설무  
이수자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상명대학교 (무용 96 학번)를 졸업하고, 국립민속국악원 <춘향을 따라 걷다>, <심청이 울었다>, <토끼야 너 어디가니>, <무본 I: 정.중.동> 등 안무 및 출연하시고 2017 창무국제예술제 무용예술상 연기상을 수상하신 복미경 안무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인가요?**

**A.**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전공했었어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음악 전공으로 입학했는데, 입학 초기에 무용선생님의 눈이 띄어 전과하게 되었지요. 제 모습이 무용하기에 좋은 신체라며 권유하셨어요. 저는 그 때 당시에 무용공연을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학교 선배들의 공연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어요. 그 공연 이후 “무용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죠.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주세요.**

**A.** 저는 1991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하여 7년을 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했고, 2010년에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안무자로 있습니다.

**Q. 복미경선생님은 안무자이시면서, 무용수로도 계속 활동 하시는데 안무자와 무용수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안무자로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일은 어렵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과 프로로서의 사명,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지요. 무용수는 항상 준비된 실력과 자기관리로 완벽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춤이나, 작품의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무대와 활동을 병행하는 무용수들이 존재하지요. 저 역시 안무 자로서의 역할과 춤꾼으로서의 개인적인 춤 활동을 어렵게 이어가는 중입니다. 늘 깨어 춤추는, 나이가 먹어도 녹슬지 않는 몸과 기량을 유지하는 춤꾼으로 살기 위해 여전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좌-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춤극 '춘향을 따라간다', 우- 국립민속국악원 '무본 : 고전의 진화'>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요. 살풀이 재해석한 '뱀의 비유'를 시작으로 '승무-PI(彼) A(我) NO(無)' 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태평무를 모티브로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전통 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시리즈로 만드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Q. 상명대 무용예술학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마디해주세요.**

**A.** 상명대는 다양한 무용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고, 실기나 이론 쪽으로도 좋은 교수님들과 강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무용수, 훌륭한 교수, 훌륭한 예술경영자 등 인재들이 많이 배출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용단의 안무자로서 보다 춤을 사랑하고 춤을 이어갈 많은 무용수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늘 응원하겠습니다.

글·편집 유현민, 황지연

# PEOPLE INSIDE

## 진로 멘토 인터뷰



### 타 장르의 새로운 도전 DUAL CAREER, MULTI-TASKING 유정인 캐스터님을 만나다!

현) 매일경제 TV 캐스터  
Jeong In Ballet Fit 대표

상명대학교 (무용 09 학번)를 졸업하고, 2015 미스코리아 서울 당선, 한국경제 TV 캐스터로 활동했고 현재 정인 발레핏 대표이자 매일경제 TV 캐스터로 활동중인 유정인 캐스터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무용이 아닌 캐스터라는 직업으로 전향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캐스터라는 직업을 언제부터 생각하신 건가요?**

**A.** 발목에 고질병이 있었는데 대학교때 발목부상이 심하게 생겨 발레리나가 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재근 교수님께서 직접 주최하신 공연에 KBS 방송사 아나운서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대학교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박재근 교수님께 무용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저를 설득하셨죠. 그러나 저의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캐스터 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다방면으로 해보다가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캐스터와 관련된 직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Q. 캐스터가 되기까지의 준비과정이 궁금합니다.**

**A.** 매일 아침 신문을 종류별로 읽고 시사 상식을 공부했고 학원에 가서 면접 연습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 시험을 치르며 다녔어요. 50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1차 서류부터 거의 다 떨어졌죠. 좌절하던 중 미스코리아에 출전해 솔직함으로 어필을 했었어요. 그때 MBC '사람이 좋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프로그램 감독님이 저를 취재하길 택하셔서 촬영하게 되니 서류전형이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한국경제 TV에서 포문을 트게 되며 캐스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 좌,우 - 유정인 캐스터님 한국경제TV 방송 >

**Q.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발레를 1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무언가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방송반 일도 하고 대학생 때 어학연수도 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고 안주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거 같아요.

**Q.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명대 무용과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 주세요.**

**A.** 저도 학생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고 무용만 하는 안전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틀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도전하기가 더 수월해 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왜 그때 더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이 부딪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도전했으면 합니다.

글·편집 유현민, 박세린, 김선영

# Review

## 무용예술학과 공연 및 워크숍 그 뒷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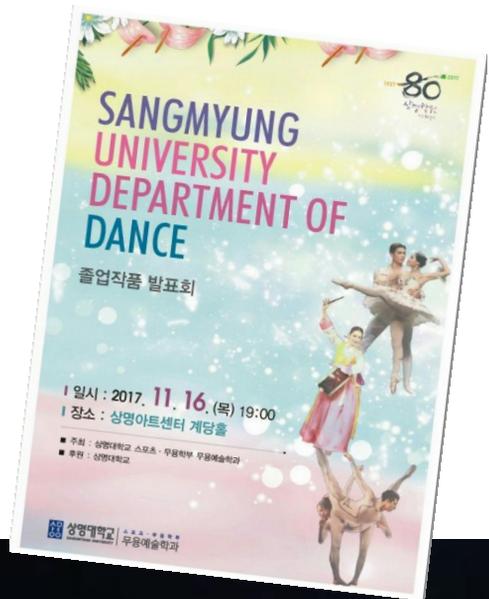
### 대신금융그룹배 한·일 에어로빅 축제



지난 2017년 9월30일 서울 올림픽 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열린 **한·일 에어로빅 피트니스축제**에서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에어로빅 사계절 운동 중 여름종목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선배, 동기, 후배님들과 함께 노력하며,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무용예술학과는 더욱 성장해 갔다.

### 2017 졸업작품 발표회

지난 11월16일 목요일 오후 7시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졸업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순으로 진행되어 총 31명의 출연진이 솔로 또는 듀오로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을 주제로 졸업작품 대신에 졸업논문을 제출한 학생 3명도 이름을 올렸다.



## 발레 실기 워크숍



2018 여름방학 7월 9일부터 7월 13일 일주일동안 월해관 507호에서 **알렉산드로 선생님**과 발레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섬세한 지적들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다.

2018년 4월 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비아 페스티벌에 상명대 무용예술학과 현대무용전공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비아 페스티벌은 새봄을 맞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길'(VIA) 위에서 향유하는 축제로서 다양하고, 통합적이고, 예술적인 축제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야외공연예술축제이다.

## 현대무용 비아 페스티벌



## 한국무용 Learning Community



2018년 겨울방학을 맞아, 무용예술학과 전문무용수팀 외 한국무용 전공 학생들은 전통 무형문화재의 맥을 잇고 계시는 저명하신 이수자 선생님들(고선아선생님 / 오철주선생님 / 송영환선생님)을 모시고 **러닝 커뮤니티**를 진행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전통춤의 맥을 잇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무형문화재 춤의 정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글·편집 유현민, 황지연, 최소진

무용예술학과 뉴스레터 <댄스르포>

# Dance Reportage

VOL. 02

2018

June

PUBLISHER 발행인  
김지영

EDITOR IN CHIEF 편집장  
유현민

WRITER 기자  
이현정 박세린 이현주 황지연  
강은비 김선영 이정민 최소진

DESIGN EDITOR 디자인 편집  
유현민 이현정

PUBLICATION 발행처  
상명대학교 스포츠·무용학부  
'무용예술학과'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월해관 405호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스포츠무용학부 무용예술학과  
TEL: 02.2287.5156 FAX: 02.2287.0076 Mail: majdance@smu.co.kr